

5: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어떤 관점으로 선정하셨나요?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평가가 완료된 작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하나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ART 씬에서는 오히려 20년, 30년 전 아직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작가들을 먼저 발견하고, 믿고 컬렉션해 온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이 존재합니다.

즉, 완성된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탄생해 가는 시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리스펙트입니다.

저는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한 인기나 인지도만으로 작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가가 앞으로 세계 미술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미 세계는 어디까지 이 작가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관점으로 작가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참여 작가들은 아직 일본에서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매우 날카로운 평가가 시작되고 있으며, 저는 이 작가들이 앞으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카시마 신의 작품은 2019년 미국 유일의 국립미술관인 National Gallery of Art 에 소장되었고, 지난해에는 Aman Resorts 에도 컬렉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세계의 문화 자본이 그의 표현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회화는 작가의 머릿속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마의 작품은 ‘연필’이라는 소재 자체의 존재성이 작품화됩니다.

즉, ‘그려진 것’이 아니라 ‘소재 그 자체’가 ART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독창성 안에서 미술사의 인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히가시 마리에는 첫 해외 아트페어 참가 당시부터 대만의 여러 프로페셔널 갤러리들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통용되는 표현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타이베이 Yiyun Art를 통해 ART TAIPEI에 참가했고, 다음 해 개인전에서는 작품 대부분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스위스 갤러리를 통해 파리 아트페어에도 참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이제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반응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토리고에 카즈키는 자신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법 《beyond the stroke》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인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붓질의 한계를 넘어, 물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끌어들이며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의 표현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시각 경험 자체를 새롭게 갱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가오슝의 대형 디벨로퍼인 양더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오슝 시립미술관 인근에 「양더미술관 — 토리고에 카즈키」가 완성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명의 현대 작가 이름이 해외 공간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가 단순한 국내 작가가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기대받는 존재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히라마츠 우조는 독자적인 스타일로 순식간에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았고,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1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SNS 인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그의 작품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세계 시장은 더 이상 갤러리와 평론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열광 역시 시장을 형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라마츠는 매우 현대적인 글로벌성을 가진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즈 라오는 2023년 프랑스 니스 국립동양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같은 해 개관한 The Ritz-Carlton Fukuoka에서는 입구에 약 10미터 규모의 대형 작품이 설치되었고, 프런트와 카페 공간에도 작품이 컬렉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텔에 작품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브랜드가 공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그의 작품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국제적인 문화 공간 안에서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아직 무명인 작가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가 본격적으로 평가하게 될 작가들을, 일본에서 가장 먼저 목격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